

한국을 탈구축하기

읽기 자료로 제시한 두 편의 글에서 내가 논의해보려고 했던 주제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.

1. 국민주의/민족주의 및 국민국가를 어떻게 탈구축할 것인가

2. (탈)현대성과 마르크스주의 이후에서 “이후”란 어떤 것인가?

1) 객관적이면서 주관적인 불확실성의 시대

(1-1) 이매뉴얼 월러스틴: 1789~1989. 200년 동안의 현대 세계의 순환이 종료된 시대. 혼돈과 불확실성의 시대

→ 그러나 이러한 불확실성은 “경향적인 또는 통제된 불확실성”

→ 주관적 불확실성은 통제된 불확실성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주체적 개입의 의미. “불확실성을 불확실하게 만들기”

(1-2) (탈)현대성 이후, 마르크스주의 이후에서 “이후”의 문제는 이러한 불확실성과 연결된 문제. 1989~1990년대 초의 포스트 담론은 “현대성 이후, 마르크스주의 이후”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간주됨. 그러나 20년 뒤 이러한 답변이 의문의 대상이 됨. 시대에 뒤떨어진 담론.

→ “답변”으로서의 포스트 담론은 그 자체가 “이후의 대상”이 됨.

→ 담론 자체의 특성이라기보다는 “포스트 담론”을 시대 주도적인 담론으로 만든 문제들의 효과. 영어권 학계의 문제들이 산출한 효과.

→ 모방된 상상의 산물로서의 “포스트 담론”

→ 객관적 불확실성의 시대는, “사회적 구조나 규범 및 학문적인 제도와 인식론적 틀이 전반적인 변화의 상황에 놓이는” 시대. 하나의 기회

2) 데리다의 유사초월론과 현대성의 문제

(2-1) 유사초월론의 의미

칸트의 코페르니쿠스 혁명의 철학적 표현으로서 초월론 철학. 인식의 가능성의 선험적 조건에 관한 비판적 탐구. 후설에서 현대철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침.

→ 데리다는 초월론이 아닌 유사초월론. 가능성의 조건은 동시에 불가능성의 조건.

초월론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 사이의 위계적이고 비대칭적인 관계에 대한 문제제기.

→ 유사초월론은, “초월론적인 근거가 경험적인 것의 우연성, 곧 그것의 역사성에 종속된다는 것을 의미”(24쪽)

→ “초월론적인 것은 한편으로 역사초월적인 것이어야 하지만 동시에 그 자체가 내재적으로 역사성을 지니는 것, 역사성에 종속되는 것이 된다.”

(2-2) 유사초월론적인 것으로서의 현대성: 코젤렉과 차크라바르티

① 코젤렉과 메타 시간성으로서의 현대성

② 차크라바르티와 현대성의 탈식민화

3. 포스트 담론의 연속적인 전개 과정: 하나의 포스트 담론에서 다른 포스트 담론으로

4. ‘한국’은 과거시제가 되었는가?

1) ‘민족’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

2) 한류, ‘K’ 시리즈

3) 글로벌한 의제